

『필름 아카이브 이야기』
(오성지, 한국영상자료원, 2009)

정은진*

기록이 보존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아카이브’란 단어는 우리 일상에 친숙하게 자리하기 시작했고 매체나 주제를 아카이브란 단어와 조합하여 여러 유형의 아카이브 모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고, 각기 다른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기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글에서 다루게 될 ‘필름 아카이브’는 매체를 중심으로 구분된 필름이라는 매체 자체를 보관하는 보존소처럼 자칫 보일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필름 아카이브인 “한국영상자료원”은 필름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영상문화 및 영화사를 규명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영화역사와 다양한 영상문화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 특히 영화필름 및 관련자료에 대한 납본의 의무를 두고 영화 관련 기록물을 대규모로 수집하여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 곳이 “한국영상자료원” 외

* 명지대학교 기록관리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에 없는 현실에서, 이러한 곳에서 거론하는 ‘아카이브’라면 필름이라는 매체와 영화 자체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당대의 영화적 행위과정과 역사를 남기기 위해 기록물을 어떻게 모으고 보존하며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두루뭉술하더라도 포괄적인 이야기와 대안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책을 접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오성지의 『필름 아카이브 이야기 (Stories of the Film Archives)』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아카이브’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여 『필름 스토리(Film Story) 총서』로 발행한 포켓북 형식의 시리즈이다. 기존의 총서 시리즈를 보면 첫 번째 편인 『한국영화사』를 통해 한국영화 100년의 역사를, 『전설의 낙인』, 『이장호VS배창호』, 『배우의 얼굴 24시』를 통해 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광수의 영화공장』, 『영화를 멈추다』에서는 작품의 제작과정과 영화작품 자체에 대해 논의하고 있어 시리즈의 대상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여덟 번째 권인 이 책에서는 영화의 매체가 되는 필름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국제 필름아카이브연맹과 해외 아카이브 활동에 관한 소개, 필름의 역사를 찾아가기 위한 활동, 아키비스트로서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의 경험 등 이 작은 한권의 책 안에서도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넘나들고 있다.

저자인 오성지는 현재 필름 아키비스트로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박물관 큐레이팅과 시네마테크(KOFA) 프로그래밍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조지 이스트만 하우스의 셀즈닉 영화 필름 보존학교에서 필름 아카이빙에 대해 정식으로 공부한 후

지금까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근무하며 그동안 쌓은 경험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저술했다고 한다.

저자는 필름 아카이브 운동이 태생된 곳이라는 점 때문에 유럽과 북미의 필름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의 필름 아카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워했지만 저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을 통해 필름 아카이브와 한국영상자료원에 대한 발전적인 이야기가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필름 아카이브 관련 용어정리, 참고서적, 필름 아카이브 기관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최초의 필름 아카이브 모임과 국제필름 아카이브 연맹에 대해서, 2장은 질산염 필름과 매체 자체로서의 영화필름, 3장은 필름과 영화의 역사를 규명하는 작업에 대해, 4장은 영화를 매개로 경험하게 되는 해외활동에서의 이벤트, 5장은 저자가 경험한 아키비스트에 대한 이야기, 6장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의 아키비스트 업무 수행에 대한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각 장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1장에서는 첫 모임에서 4개 기관으로 시작했으나 2008년 제64회 총회에서는 360명의 관련자들이 참석한 국제필름아카이브연맹(FIAF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에 대한 조직, 역사,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이 가진 장점 중 하나는 다루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잠깐 소개되는 내용일지라도 추가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이슈를 제시할 때가 있다는 것이다. 64회 연맹 총회의 심

포지엄 주제인 ‘필름 아카이브와 저작권법’은 한줄로 잠깐 소개했으나, 차후에 이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2장에서는 질산염 필름이 재난에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해 에 피소드를 통해 나타냈고 필름 매체 자체가 가지는 특징과 보존 환경에 대해 압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물질로서의 영화필름 특성을 넘어 영화이미지가 의미를 다루고 있으나, 본 장의 끝까지 매체적 특징에 대해 더 다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3장에서는 정리과정에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정보를 얻기 힘든 필름의 경우 목록작업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 이미지 속의 정보나 필름 자체에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영화 정보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원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하기도 했다는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존재했던 필름 매체에 대한 이야기, 토리노 영화박물관을 통해 영화 관련 역사를 탐방하는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4장은 여러 주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구성인데, 구분해 보자면 필름 아키비스트가 필름 아카이브 분야의 연구 및 발표를 진행하고 필름을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진행하는 내용, 여러 유형의 전시를 경험하고 느낀 점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깊이로 5장에서는 저자가 경험한 아키비스트 몇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하는 정도로 내용이 끝나서 실질적으로 조언을 얻은 내용과 아키비스트의 전문 업무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되었으

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마지막 6장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일하는 저자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는 업무적 특성 때문인지 아카이브 일련의 업무에 대한 경험보다는 서비스 단계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논의되는 글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통해 한국영상자료원의 현황은 쉽게 알 수 있지만, 아키비스트만이 알 수 있는 그 기관의 국내 보존 필름의 현황이나 상태, 실물 사진 등이 제공되기를 바란 것은 과한 욕심이었다는 것 같다. 몇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 필름 아키비스트가 되어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기관 소장 기록물의 특징적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다뤘을 때 현장감과 생동감이 더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카이브에서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업무로 수집, 정리, 보존, 활용의 단계를 말할 수 있지만 이 책은 전 과정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보다는 필름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에 대해 가볍게 안내하는 책이기 때문에, 접하는 입장에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쾌하고 가볍게 다루는 필름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그래도 묵직한 무게가 느껴지는 것은 저자가 영화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 있고, 필름 매체 자체에 대한 애착이 느껴져 이것이 고스란히 아키비스트의 열정으로 녹아있기 때문인 것 같다.

더해서, 앞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카이브는 국가, 대학, 사설기관, 재단 등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고 그 운영방식은 한계가 있는 재정과 인력 속에서 수집, 보존, 활용 기능 중 어디에 더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따라 아카이브의 목표와 임무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자의 개인적 경험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역동적인 글을 접할 수 있었지만, 큰 줄기에서 기관과 전문가의 방향성과 의견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필름 아카이브인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아키비스트 입장에서 필름 아카이브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에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한 자기반성의 의견을 내주었다더라면 차후의 필름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가 더 발전적으로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그것이 현용기록이든 보존기록이든지 간에 원칙과 실행에 있어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다른 학문들과도 친밀하게 상호 연관되어 정보영역과 문화적인 영역에 모두 속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기록을 다루고 있다. 기록관리의 토대가 되는 공통 이론과 원칙을 기본적으로 다루며 기록관리와 박물관, 도서관을 공부하는 사람들에서부터 기록관리를 담당하기 시작한 사람까지 기본적인 입문서가 필요한 다양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되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록으로 우리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한 주요 법률을 제공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원칙과 목적을, 제2장은 선정·평가 및 수집을, 3장은 아카이브 정리와 기술을, 4장은 접근·참조·그리고 홍보, 제5장은 보존, 6장은 아카이브 서비스 관리를

다루고 있다.

제1장에서는 레코드와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리하고 자른 정보원과의(도큐먼트, 지식, 정보) 차이를 규명하며 기록관의 핵심기능과 이를 담당하는 사람(아키비스트, 레코드 매니저)의 역할을 개략화하고 있다.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기록의 품질의 문제와 생애주기, 연속체, 출처주의, 원 질서 이론 등을 통해 기록의 원칙과 개념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저자에 따르면, 고유한 활동의 결과물로 증거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록이 가지는 큰 특징이고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과 맥락,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특징과 함께 진본성, 무결성, 이용가능성, 신뢰성을 가졌을 때 국제적인 기준에서 권위 있는 기록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또한 아카이브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모델과 필사본을 다루는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과 국립 아카이브 간의 필사본에 대한 역할 관계, 수집 기록을 다루는 박물관에 대한 내용이 그것이다. 한편 공립 아카이브와 사립 및 상업 목적의 아카이브로 구분하고 이는 기록의 권위의 출처와 법률 및 규제 환경, 설립 주체, 목표 및 업무, 책임자, 자료 획득 방식, 접근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록을 획득하는 방법에 따른 모델로 내부 기관에서 생성된 기록을 획득하는 인하우스 모델이 있고 수집에 의해서 기록을 모으는 모델이 있으며 내부 기록을 관리함과 동시에 외부 기록을 수집하는 복합형태의 아카이브를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제1장에서 일반적인 이론을 다루었다면 제2장에서부터는 아

카이브 기능의 특정한 부분들을 다루며 이 장에서는 기록의 선별하고 이를 평가하고 수집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키비스트가 평가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아카이브를 선별하고 평가해야 하는 이유와 무엇을 어떻게 선별하고 평가하는 지에 대해 논한다. 특히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평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평가를 위해 문서화 전략, 거시 평가 및 기능 분석, 미네소타 사례의 실용적 수집 전략, 레코드 중심으로 분석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통해 평가할 수 있고 하며 이는 기록이 가진 증거적, 정보적 가치를 판단하고 조직과 내용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일련의 평가는 수집 기능과 기록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평가 과정을 준비하여 수집 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장은 앞 장에서 수집되고 평가된 아카이브를 정리하고 기술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다. 이 장에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아카이브에 쉽고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검색도구를 생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이론과 원리를 다룬다. 이 내용은 특정 작업 환경에 적합한 검색도구의 범위를 결정하고 개발하는 일과 이러한 검색도구를 통해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는 일, 기록을 정리하는 일, 기술 표준의 범위를 알고 이에 따라 기록의 기술(description)을 생성하는 일을 포함한다.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준들로 출처, 원 질서, 기능, 정리수준, 시리즈, 포맷을 제시하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정리하는 내용에 대해 개략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포맷을 따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록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형식 자체가 명백히 원 질서라면 이것이 허용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나 출처나 원 질서를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비조직

화된 기록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유형, 연대기적, 철자 순서와 같은 장르나 포맷에 따른 각기 다른 역할과 활동에 관련하여 기반을 두어야 한다.

기술을 위한 표준은 도서 목록화를 위해 개발된 표준, 기록물 기술규칙, 명칭 관련 표준(개인명, 기업명, 장소명 등), 주제와 테마에 대한 시소러스 등을 간략히 소개하고 기록물 기술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전자기반으로 변한 환경을 고려하여 ‘아카이브 기술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포맷’과 ‘전자 포맷의 아카이브 기술’, ‘아카이브 정보검색’ 등의 내용을 다루며 EAD 요소와 목록 엔트리 디스플레이, 데이터 세트 기술 예시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제4장은 수집, 선정, 정리, 기술, 보존된 이용자가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에 관한 내용과 이용자를 확대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용자가 아카이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적, 윤리적, 지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법적 문제로 프라이버시와 저작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접근정책과 표준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윤리적 문제는 직업적 정체성을 보증하기도 한다는 것을 간주하며 아키비스트 윤리강령과 관련 협회 및 기관의 자체 윤리 규범 등을 통해 접근의 윤리와 행위의 규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지적 문제는 이용자 기반의 접근과 참조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이용자는 서비스의 실질적 혹은 잠재적 이용자가 될 수 있고, 내부 혹은 외부 이용자가 될 수 있으며 열람실 및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련 커뮤니티 내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이를 위해

봉사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공공프로그램을 수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봉사 활동은 출판, 웹 페이지를 통한 서비스, 교육 및 학습, 후원자 그룹, 전시회, 미디어 등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제5장은 장기간 관리할 기록들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기록이 가진 보유기관과 처분방법으로 다루어지는 것 외에 후대에 남겨질 필요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문제에 대해 다룬다. 이는 보존 기능을 정의하고 관련된 정책, 전략, 표준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보존의 피로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식(예를 들면, 설문조사, 감사, 벤치마킹)에 대해 논한다. 실질적으로 보존을 수행함에 있어 다양한 매체의 속성을 알고 이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보존 환경을 구축하고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다룬다. 특별히 본 디지털 기록의 보존과 디지털화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이는 디지털 매체의 특성, 보존 메타데이터 등의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웹 아카이빙에 대한 최근의 이슈까지 간략하지만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 장의 내용을 통해 기록의 속성과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수집, 정리, 보존, 이용에 관한 기능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서술하였다면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제6장은 아카이브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전략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프로젝트 계획을 통해 아카이브 내에서

일어나는 업무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설명하고 정책들과 업무계획을 설정한다. 아카이브 서비스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관리해야할 대상으로 인적자원(직원과 자원봉사자), 재정적 자원(예산), 물리적 자원(시설, 장비)을 정하고 이에 대한 관리 내용과 과정을 설명한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기관의 현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아카이브 기능 전반에 대한 평가와 목적과 목표 및 성취에 대한 측정을 위해 설문조사와 환경 분석을 제안한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이해하고 다양한 목적을 도출할 수 있으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 단언한다.